2026

평화의 씨앗

From the DMZ

철조망이 녹아내린 자리에 평화의 꽃이 피어납니다.



PEACE



피쓰씨드 : From the DMZ

본 씨앗은 DMZ 접경지역 자생종을 인가된 농가에서 재배·증식한 종자입니다.
굿즈를 받고 끝나는 일회성 소비가 아니라, 식물을 키우는 수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통일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억의 지속성'을 부여합니다.

철조망이 그려진 패키지의 포장을 뜯어내면 금초롱, 노루귀, 꿩의바람꽃과 같은
DMZ에서 발견 가능한 꽃들의 씨앗이 들어있는 한반도 씨앗 패키지가 나옵니다.







SEEDS

1. 포장지 상단 QR코드를 스캔하여 씨앗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2. 포장지 우측 하단에 절취선을 따라 개봉해줍니다.
3. 동봉된 화분에 흙을 채워 씨앗을 적정 간격으로 심어줍니다.
4. 꽃이 개화하기 까지 세심하게 관찰하며 관리합니다.
5. 식물을 돌보는 과정 속에서 한반도의 아픈 역사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깁니다.